

大學博物館과 美術史教育

文 明 大*

차 례

- | | |
|---------------------|---------------------|
| I. 머리말 | 2. 專門美術史教育 |
| II. 美術史教育의 중요성 | IV. 大學博物館에서의 미술사교육 |
| III. 美術史教育의 문제점 | V. 美術史教育和 대학박물관의 기능 |
| 1. 教養 및 美術學科의 美術史教育 | VI. 맺 음 말 |

I. 머리말

1987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박물관수는 61개교(대학박물관협회교등등록수)에 이르고 있다. 국립박물관(7개), 공립박물관(3개교), 사립박물관등과 비교해 보면 단연 압도적인 수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유물총수도 국립박물관(중앙박물관 10만점)보다 많은 40만여점이나 되고, 조사연구와 발굴(445회) 또한 거의 독점하다시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의 인적구성·전시공간·예산확보·교육환경 등에 있어서는 몇대학외에 형편없이 낙후되어 있다. 말하자면 압도적 수에 비해서 박물관으로서의 교육적 기능·사회적기능이 크게 결여되어 있는 반면 조사연구활동은 몇 개인에 의하여 초인적인 활동을 보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 같다. 즉 몇몇 학자의 이른바 몸으로 떼우는 식의 열정적인 노력에 의하여 대학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보다는더 인원과 예산이 갖추어지면 대학박물관은 무한히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대학교육과 우리사회에 기여하는 면이 적지 않은 것이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도 없다. 즉, '대학박물관은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말이다.

현재 대학박물관은 고고·민속·역사등 다양한 분야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 보다는 미술사의 기능이 절대적이다 할 수 있다. 모든 유물은 거의 미술사자료이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미술문화를 학내외에 널리 알리고 교육시킨다면 그 효과는 지대할 것이다. 이른바 우리나라 미술사교육의 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대학박물관인 셈이다. 앞으로 대학박물관은 이런면에 대한 관심을 진지하게 가질 때 대학박물관의 존재의의가 좀더 부각될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미술사교육의 중요성을 간략히 살펴보고 그 다음 미술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 東國大學校 教授. 博物館長

대학학과와 대학박물관으로 나누어 논의한 후 미술사교육에 대한 대학박물관의 기능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한다.

II. 미술사교육의 중요성

미술을 흔히 조각·건축·회화·공예로 나누지만 인류가 남긴 문화유산 가운데 그 진수를 통털어 미술이라 말해지고 있다. 이 미술작품이 어떻게 아름답고 어떤 변천과정을 겪었으며 그 의의와 가치는 무엇인지등을 연구하는 것이 미술사이다. 그러므로 미술사는 인류문화의 진수인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밝히는 학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사실 미술은 선사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전 시대를 통털어 지금과 같은 개념으로 한결같이 정의짓기란 어렵다. 이른바 순수미술작품의 정의는 시대나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술사의 개념을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선사미술은 모든 유형의 작품을 통털어 미술사의 자료가 되지만 역사시대인 삼국시대 부터는 조각·건축·회화·공예작품 가운데 뛰어난 종교작품 내지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미술사자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조선조이후나 근대에 있어서는 전문작가나 수준높은 지성인 작가들의 작품을 가장 중요한 미술사자료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전 역사를 통관해서 볼 때 모든 유형적인 문화유산을 통털어 미술사자료로 규정하거나 유명한 전문작가의 작품을 미술사자료로 삼거나 간에 그 시대 그 사회의 문화유산의 핵심적 요소를 미술사의 중요자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따라서 미술사자료는 인류의 창조적인 문화유산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유산의 총체를 그 재료나 모양, 기법이나 양식, 작가의 인간성이나 기량, 제작년대나 장소, 작품의 기능이나 의의, 성격이나 영향(交流)등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조명하고 평가하며 해석하는 것을 미술사학이라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미술사 연구는 인문학의 꽃이자 학문의 총아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하겠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19세기 전반기부터 대학의 학과로 성립되어 활발하게 학문영역을 넓히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미술사연구는 모든 서양적인 학문과 마찬가지로 20세기 이후부터 시작되었지만 본격적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태동했고, 1970년대 이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다른 학문분야 보다 현저히 뒤떨어져 있는데 아직도 대학에 독립된 미술사학과(美術史學科)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이 방면의 연구와 교육은 대학에 학과들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지만 대학박물관에서 미술사를 교육시키는 것도 학과 창설못지 않게 중요한 방안이 될 것이다.¹⁾

1) 우리나라 미술사교육에 대해서 논의한 본격적인 연구들은(美術史學 1집)(한국미술사교육연구회, 1987)에서 미술사교육의 현황과 전망특집으로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의 미술사학과 미술사교육—문명대
미국의 미술사학과 미술사교육—김영나
독일의 미술사학과 미술사교육—권영필
프랑스의 미술사학과 미술사교육—임영방
종합토론

Ⅲ. 美術史敎育의 문제점

미술사는 이처럼 중요한 학문분야에 속하지만 우리나라에는 가장 늦게 알려진 학문이고, 그나마 이를 대학교육에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 아니다. 이런점부터 우선 간략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1. 敎養 및 美術學科의 美術史敎育

1945년 이후 우리나라 정부에 의하여 대학이 정식으로 설립될 때부터 美術科들은 상당수 개설되었다. 1987년도 현재 미술계열과들을 약 160여개에 이르고 있으며, 매년 배출되는 졸업생들의 수는 대개 7,00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전문대학까지 포함할 경우 10,000명을 상회하는 막대한 수의 미술전문인력이 배출되는 셈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는 미술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는 문화의 선진국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막대한 미술전문인구는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막대한 수일 뿐더러 우리나라 전문인력 수급상 터무니없이 과다한 편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대학의 미술교육은 고도한 전문인을 양성하기 보다 취미나 교양을 길러주는 교육으로 치중하게 만들고 있다. 그나마도 미술교양인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학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실기위주의 기술교육에 치우치는 파행적인 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미술사 내지 미술학에 대한 과목들은 거의 없는 셈인데 특히 미술사과목들은 희귀한 편이라 하겠다. 가령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는 서양미술사(西洋美術史)만 필수일 뿐 동양미술사는 동양화과에만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화여대 미술대학은 미술사 한 과목만 있을 뿐인데 다만 교양과목으로 한국미술사가 개설되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은 다행히 한국·동양·서양미술사 세과목이 모두 개설되어 있으며, 동국대학교 미술학과 또한 한국·동양·서양미술사가 개설되어 있다. 이처럼 미술사는 가장 많은 경우 세과목이 개설되거나 아니면 한과목정도만 개설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韓國畫科(東洋畫)의 경우를 예로 들 경우 최소한 한국회화사(韓國繪畫史)나 동양회화사(東洋繪畫史)는 필수로 개설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은 서양화과나 동양화과 그리고 각 공예과들도 마찬가지라 하겠다.

더구나 교양과목으로 미술사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 몇대학에 불과한 위귀한 실정이며, 그나마 「미술감상」정도의 과목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실험대학 이전에는 각 사학과(史學科)에서도 미술사과목이 더러 개설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거의 없어진 셈이어서 전반적으로 미술사과목들은 극히 한정적으로 개설되어 있는 것이다.²⁾

이처럼 미술사과목이 양적으로 극히 적게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사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양이 많다고 해서 교육의 질이 우수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일단 어느정도의 수준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미술사교육이 안고있는 첫째가는 문

2) 문명대 「한국의 미술사학과 미술사교육」〈美術史學〉 1집, 1987, pp. 5-43.

제점이다.

더구나 전국대학에 통틀어 미술사교수는 20여명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모든 학생들에게 미술사과목들을 제대로 강의할 수 없을 것이다. 미술과에서는 현재 상당히 개선되긴 했지만 실기자(교단에 갓 서기 시작한 실기강사)들이 미술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미술사교육의 질 또한 형편없다고 평가되고 있다.³⁾

또한 미술사의 기본인 시청각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실물을 대하는 생생한 현장교육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현장교육에는 대학박물관의 역할이 지대하므로 앞으로 이런 면에서 적극적인 노력이 기우려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專門美術史教育

현재까지 정식 「美術史學科」라는 명칭으로 된 학과는 하나도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考古學과 함께 共存하는 考古美術史學科가 서울대·동국대 경주분교·동아대·충북대(1988년도) 순으로 개설되었고, 이외에 유사학과로 동국대 불교미술(전공), 홍익대 예술학과등이 1969년도와 1986년도에 설치된 정도이다. 이들 여러과들은 학과의 전공분야이므로 교과과정상 전문성이 결여되었고, 교수확보가 부족하며 체계적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여러가지 난관이 가로놓여 있다.

학부에 독립과가 없지만 대학원에는 일찍부터 미술사학과가 개설되어 있다. 홍익대·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 대학원(1985년 폐쇄). 이화여대·동국대·성신대 순으로 개설되었고 서울대등은 고고학과와 공존하고 있다. 대학원 미술사학과 역시 학부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교수진의 부족과 교과목의 한정등이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미술사교육의 애로점은 대학박물관이 협조한다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실습교육으로 상당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IV. 大學博物館의 美術史教育의 現況과 問題點

앞에서 살펴보았다시피 교양이나 전문 美術史教育에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가로놓여 있는 것이 솔직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런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갖가지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좋은 방안의 하나는 대학박물관에서 미술사교육의 일익을 담당하는 방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학마다 박물관이 설립되어 있다. 물론 이들 대학박물관은 발굴한 유물(遺物)을 주로 소장진열하는 考古博物館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곳도 상당수 있고 또는 민속자료들을 수집한 곳도 꽤있는 셈이지만 대개 미술박물관의 성격이 더 강한 편이다. 고고자료도 박물관의 자료로 또는 진열품으로 활용되면 미술사자료의 대상이므로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은 거의 미술박물관의 구실을 한다고 보면

3)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 安輝濬 「韓國學校美術教育의 問題點과 改善方案」〈정신문화연구〉1985, 봄호 참조.

○ 文明大 「대학미술교육의 전공교육과 교수법」〈미술세계〉1987.3월호 참조.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대학박물관에는 상당한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한 몇가지만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원의 구성문제이다. 전국대학박물관(全國大學博物館)에 미술사전공자가 관장(館長)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는 한두 예밖에 없고, 학예직(學藝職) 또한 손꼽을 정도이다. 대개 고고학(考古學) 내지 사학(史學) 전공자가 연구원의 태반을 차지하고, 관장은 고고학·사학 이외에 다양한 전공자가 재직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대학이 박물관장은 학교의 보직(補職)으로 간주되어 전문직(專門職)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적임의 전문교수가 없다면 신규채용해서 박물관장으로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구지방등 일부 대학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 전문교수가 엄연히 있는데도 이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농후하게 되었다.

고고학자는 현 대학박물관의 성격상 당연히 전문교수이므로 박물관을 책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며, 특히 대학박물관이 가장 중점사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 발굴이므로 바람직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역사학자도 고고박물관 내지 역사박물관의 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미술박물관의 성격이 강한 박물관일 경우 미술사학자가 박물관의 관장과 학예직을 맡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대학박물관의 경우 미술박물관의 성격이 강한 곳이 많으므로 이런 박물관은 앞으로 전공자에게 박물관을 점차적으로 맡겨야 하지 않을까. 박물관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하는 기관이므로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전공자를 우선적으로 써야 박물관이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다. 관장도 학예직도 비전문인을 채용했을 경우 그 박물관은 개점휴업(開店休業)이나 마참가지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학박물관은 그 대학의 문화공간의 중심지이자 차원 높고 즐거운 오락과 휴식의 장소로 인기를 모아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대학박물관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미술박물관은 당해 대학에 미술사학과(미술학과의 미술사 교수)와 합동 또는 협력하여 미술사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대학박물관의 중요 기능인 사회교육기능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교생을 상대로 하는 미술사교양시간이나 미술사학과의 전문미술사교육시간에 박물관이 보조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고, 박물관 자체에서 미술사 교육과정을 개발해서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박물관 자체의 교육과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대학박물관에서 박물관대학이 개설되고 있는 곳은 숙명여대인데 다년간 실시되고 있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미술사 뿐만 아니라 박물관관계의 강좌가 다양하게 개설되고 있어서 꼭 미술사강좌는 아니지만 보다 알찬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대사회교육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대학박물관에서 미술사교양강좌를 실시한 곳은 동국대학과 연세대가 있지만 현재 두 학교 모두 중단상태에 있고, 충북대학교에서 최근박물관교양강좌를 실시한다고 하므로 앞으로 미술사교양강좌도 마련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보면 대학박물관이 자체적으로 미술사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희귀한 편이어서 보다 활성화 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것은 바로 대학박물관의 존재 의의와 직결되며, 대학박물관의 활성화의 첨경이기도 한 것이다.

V. 美術史敎育과 대학박물관의 기능

대학박물관 자체의 미술사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지 않을까 한다.

첫째 전시회(展示會)와 미술사교육(美術史敎育)이다. 우리나라 대학박물관(大學博物館)은 연 1회 내지 몇회에 걸쳐 특별전(特別展)을 열고 있는 곳이 꽤 있다. 토기전(土器展)·도자기전(陶磁器展)·회화전(繪畫展)·불상전(佛像展)·불화전(佛畫展)·기와전(瓦當展) 등 갖가지 전시회가 다양하게 개최되고 있다. 대개 도록(圖錄)이나 강연회를 마련하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좀더 보편화 되어야겠으며, 전시회가 보다 다양하고 체계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지방 대학박물관은 전국 각 대학박물관소장품을 대여해서 전시하고 이 기회에 관계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양강좌를 실시한다면 지역문화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전문가 내지 대학원생들을 위한 전문적인 학술발표회나 토론회등을 전시기간 동안 개최하여 문제점위주의 전문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미술사발전이 급신장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이러한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각 대학 박물관에서 꼭 실시해야 할 과제라 하겠다.

둘째, 미술사 교양교육의 활성화이다. 대학박물관에서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위한 정기적인 교양강좌를 실시해야 한다. 조각사·회화사·공예사·건축사에 관한 일반 상식이나 감상, 전반적인 문제등을 다양하고 재미있게 교육시켜 많은 학생이나 일반인의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미술사 이해의 저변층을 확보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교양교육은 미술사학과 내지 미술사 교수와 합동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박물관학 과정에서의 미술사교육이다. 몇몇 대학박물관은 박물관학과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⁴⁾ 박물관 학예연구직을 원칙적으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인데 박물관이 관계학과와 공동으로 박물관학과정을 개설해서 운영한다면 훌륭한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미술박물관일 경우 미술사 전문 학예원을 심도있게 양성할 수 있을 것이다. 학부과정에서도 가능하겠지만 석사과정에서 박물관학과정을 설치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Metropolitan) 미술관과 뉴욕대학 대학원 미술사학과와 합동으로 석사과정에 박물관학과정을 이수하게 하는 프로그램일 것이다.⁵⁾ 미술관에서는 실무교육을 담당하고 대학원에서는 전문이론교육을 담당하므로써 훌륭한 박물관학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대학박물관은 미술사전문교육의 현장실습장소로 제공되어야 한다. 미술사학과 학부학생이나 대학원학생들은 미술사자료를 직접 관찰·검토하면서 공부하는 산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슬

4) 일본 立敎大學 경우는 학과나 박물관에서 담당하지 않고 독립교과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년영 「博物館의 研究機能과 研究職」(古文化) 26집 1985.7 참조.

5) M. Marrison, Education in Museums, *The Organization of Museums*, Unesco, 1960, pp.81~92.

라이드나 영화같은 시청각교육으로도 어느정도 가능하지만 실습교육을 거치지 않는다면 전문가가 될 수 없다. 특히 대학원학생들은 직접 실물자료를 다루어 보아야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실습의 장소로 박물관이 제공된다면 미술사학과 내지 미술사교수가 박물관에 참여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학박물관은 제도화되어 있는 편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관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박물관의 일차적인 목적은 당해 대학학생들의 학습을 도와주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도서관이 학생들의 이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학박물관 역시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박물관은 대학박물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일반학생들의 관람은 물론 전공학생들의 자료관찰에 직접 기여할 수 있어야만 대학박물관의 기능이 살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어느 학생에게나 무제한적으로 유물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정한 규제조항을 두어 유효적절하게 제공되어야 마땅하겠다.

다섯째, 박물관의 전문도서나 탁본·사진·도면같은 기본자료 역시 학생들에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탁본이나 사진·도면등은 오랜 축적과정과 막대한 재정부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학과실정으로서서는 이들을 갖추기에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대학박물관이 이들을 체계적으로 갖추어 전공학생들의 학습자료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Ⅵ. 맺 음 말

지금까지 우리나라 미술사교육과 대학박물관의 기능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다. 미술사는 우리나라 문화사 내지 세계문화사에 극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창조적인 작품 가운데 형태적인 작품들의 역사를 밝히는 분야이므로 문헌적인 인류 역사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미술사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극히 부진하게 연구되었는데 그것은 대학에 정식학과가 하나도 없고 몇몇 대학원과정에 설립되어 있을 뿐이어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학과뿐만 아니라 미술사 교육에 중요한 구실을 할 대학박물관 역시 관장과 학예직에 미술사전공자가 거의 없으며, 미술사교육 또한 거의 실시되고 있지 않아서 이 역시 문제점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대학박물관은 학과 내지 교양미술사 교육에 커다란 구실을 할 뿐더러 대학박물관 내지 박물관학과정 그리고 박물관자체의 고유 기능에 따라 미술사 교육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방면의 교육기능을 크게 활성화 한다면 우리나라 미술사 교육 내지 연구에 대학박물관의 공헌은 지대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이다.